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주민 숙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부 지역구 의원들 공사 조속 시행 ‘한목소리’
이승아, 도 13개 실·국 팀장 행정직렬 한정 지적

중단된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2일 속개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에 앞서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김영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환경을 걱정하는 도민과 환경단체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하지만, 공사 착공 이전에 도로공사에 관한 부분이 도민들에게 알려졌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나무가 벌채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쇠뚝구리는 마소의 배설물을 먹이로 하며 산다. 삼나무 숲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쇠뚝구리 잡아다가 삼나무에 매달아 놓고 사진을 찍어서 쇠뚝구리 서식지라고 찍어서 방송을 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쇠뚝구리가 삼나무에 살면 신이 내린 기적”이라며 “환경 지키자는 것 이해하지만 왜곡·조

작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지역 숙원 사업”이라며 “도로 확장을 계획할 당시 차량 통행량과 최근 차량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2000대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있지만,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 부담을 갖는 것 같다”며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 요구도 있고, 제주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13개 실·국 정책부서의 팀장의 직렬 규정 내용이 공직사회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문직렬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주도에 두는 팀의 명칭과 팀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 훈령을 통

해 각 실·국별 정책부서 팀장(사무관)의 직급과 직렬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과 보건복지여성국, 교통항공국, 미래전략국 등의 부서 팀장을 행정사무관 직렬만 규정하고 있다”며 “각 분야 정책부서의 팀장을 일부 직렬만 한정하면서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면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15일 방재안전연구 직렬과 데이터 직류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춰 공직사회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lty9456@ihalla.com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 무늬만 확장재정 예산 편성”

김태석 “내년 예산 0.12% 증가… 편성 목표와 모순”
코로나19 여파 고려한 실질적 예산 증액 필요 강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5조8299억원 규모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70억원(0.12%) 증가에 그쳐, 무늬만 확장재정이라는 지적이다.

2일 속개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8.5% 증가하고 있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도 평균 7.6%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0.12%에 그치고 있다”며 “제주도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 이상이고,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상태에서 확장재정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



김태석 의원.

김황국 의원.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편성은 ‘살 맛 나는 더 큰 제주건설’이라는 예산편성 목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을 입은 대규모 예산을 1.7% 증액했다”며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 입도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 1·2동)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확장재정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긴축재정”이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1700억원 등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엄청난 확장재정이다”면서 “30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기자

‘제주형 뉴딜’로 새로운 미래 찾는다

제주산업발전포럼 4일 생중계

제10회 제주산업발전포럼이 4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와 줌(Zoom) 화상회의로 생중계된다.

주제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서 공동 발표한 제주형 뉴딜에 초점을 맞춘 ‘포스트 코로나, 제주형 뉴딜로 보는 새로운 미래’다.

김상협 제주연구위원장이 ‘한국판 뉴딜과 제주형 뉴딜’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제주형 뉴딜에 대한 큰 틀의 배경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한다.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 에너지 컨설턴트는 세계 에너지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경제의 실현방안을 제시한다.

하용호 XYZ벤처파트너스 공동대표는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제주의 스마트·디지털 아일랜드 실현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은 기술·치유·문화가 융합된 J-방역(제주형 방역시스템)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제주산업발전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주관한다.

제주산업발전포럼은 기업인, 기술인, 일반인, 학생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원격 병충해 방제 농약·시간 절감 ‘일석이조’

농약 25%·작업 시간 83% 줄어

시설하우스의 원격 병충해 방제로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작업시간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설하우스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보급을 통해 농약사용량 25%, 방제작업 시간 83%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인 농약 노출 피해를 줄이

기 위해 운영됐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이를 위해 사업비 1억4100만원을 투입해 한라봉, 천혜향 등 7개소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원격 무인방제가 가능한 ‘에어포그 시스템’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효과는 관행 대비 80~90%에 이르는 것으로 농가 만족도가 높았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2021년에도 사업비 7100만원을 투입해 시설하우스 4개소에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학교에 명상숲 조성하세요” 숲 면적 500㎡ 이상 학교 대상

제주시는 청소년들에게 자연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1년 학교 명상숲 조성’ 사업을 이달 15일까지 신청받는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학교운동장 주변 자투리공간이나 학교 담장 경계 공간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학교당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특수학교, 대안학교로 숲 조성 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한다. 조성된 숲은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환경친화적인 태도 육성 등 인성교육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가활동을 위한



우도초등학교에 조성된 명상숲. 사진=제주시 제공

녹색색터로 제공된다.

시는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이달 말 2개 학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21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했고, 올해는 조전중과 우도초·중학교에 조성했다. 문의=공원녹지과 728-3573.

문미숙기자 ms@ihalla.com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56-9041

장학생 선발 공고

2021년도 효돈장학회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월 15일

2. 대 상

- 서귀포시 효돈동에 거주하거나 효돈동 출신 주민의 자녀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단, 타 장학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

3. 선발인원 : 대학생 약간명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 (본회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전학기 학업성적 증명서 1부
-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 건강보험 고지서 사본 1부
- 사진 (반명함판) 2매

5. 제 출 처

서귀포시 신효중앙로 4번길 1 신효마을회관 내 효돈장학회

6. 문 의

총무 이사 강계영 010-2696-0673

효돈장학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이사장 010-7696-2180 / 총무 010-2696-0673

효돈장학회 이사장 이대협

제8회 조설대 집의계 애국선구자 경모식(敬慕式)



□ 일 시 : 2020. 12. 5.(토) 11:00

□ 장 소 : 조설대 (오라동 3135, 연미마을회관 앞 인근)

※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합니다.

조설대 집의계 12 애국선구자 후손 대표 명단

이용호(李溶鎬, 오라) 후손 이종익 김좌겸(金佐謙, 오라) 후손 김익중 김병로(金炳瀾, 이호) 후손 김두영 김병귀(金炳龜, 도평) 후손 김재은 김이중(金履仲, 화북) 후손 김돈수 고석구(高錫九, 오라) 후손 고동주 김석익(金錫翼, 이도) 후손 김동식 강철호(姜哲浩, 대정) 후손 강석연 김기수(金基洙, 영평) 후손 김순택 강석종(康錫宗, 오라) 후손 강준희 임성숙(林成淑, 대정) 후손을 찾습니다. 서병수(徐丙壽, 대구) 후손을 찾습니다.

☎ 연락처 : 728-4802, 010-7918-5599

오 라 동 장
오라동자연문화유산보전회 조설대경모식추진위원장